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된 한인여성에 대한 고찰

- 舒羣의 「이웃」과 戴平萬의 「만주이야기」를 중심으로

고현진*

— 목 차 —

1. 들어가며
2.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의 형상
3.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딸의 형상
4. ‘타자화’된 한인여성과 의미
5. 나오며

국문초록

수羣(舒羣)의 「이웃」과 戴平萬(戴平萬)의 「만주이야기」는 1930년대 만주에서 한인여성들이 생존하기 위해 걸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다. 두 소설은 모두 1936년에 창작되었고, 만주가 배경이며, 절박한 현실 속에서 고려인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내용을 주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두 작가는 ‘극심한 가난은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에까지 잃게 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중국인의 시선을 보여주었다.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동정한다. 또 어떤 이는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우월주의’가 저변에 깔려있는 ‘타자화’의 일종이다. 이에 본고는 작품 안에 나타난 한인여성을 크게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딸’의 형상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1930년대 한인여성들이 만주지역에서 최빈곤층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차별을 당한 이유와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남경대학교 문학원 현대중국문학 박사과정

키워드 : 수췌(舒羣), 다이핑완(戴平萬), 성매매, 모성애, 민족차별, 타자화

1. 들어가며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며 20세기 초에는 항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다. 1919년, 중국현대문학사에서 귀모뤄(郭沫若)는 첫 번째 한인제재소설¹⁾인 《금강산애화기(牧羊哀話)》를 창작했고, 뒤를 이어 장광츠(蔣光慈), 다이핑완(戴平萬), 타이징농(臺靜農)등의 중국작가들이 ‘조선인’ 또는 ‘고려인’²⁾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도 한인제재의 작품 수는 많지 않으며 작품 속에 형상화된 한인의 모습도 주로 ‘배움의 대상’으로 그치고 있다. 그런데 1931년 9-18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에서 항일문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조선인’ 또는 ‘고려인’을 제재로 한 문학작품도 함께 증가했다. 이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인의 모습은 이전의 작품들과 다르게 그 성격과 특징이 다양하다.

한국과 중국에서 한인제재소설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냈지만, 상당수 연구논문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중국인의 시선 변화나 성격에 따른 인물의 특징, 구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많은 연구가 귀모뤄(郭沫若), 바진(巴金)과 같은 소위 중국현대문학의 주류작가라 일컫는

1) ‘한인제재소설’이란 개념은 1996년 박재우가 처음 내세웠다. 박재우는 중국현대문학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의 형상, 작가의 유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 동북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중국인들의 인식에 따라 당시 만주지역의 중국인들은 한인 을 ‘조선인’보다 ‘고려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고에서 분석하는 두 작품 「만주이야기」과 「만주이야기」에서도 한인여성은 ‘고려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 한인여성을 가리킬 때는 ‘고려인’을 쓰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선인’, ‘한인’을 혼용하겠다. 본고에서 ‘고려인’, ‘조선인’, ‘한인’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미리 밝히고 논의에 들어가겠다.

작가의 작품에 치중되어 있거나, 한인제재소설의 중심에 서 있는 '동북작가군'에 대해서도 개별 작가 또는 개별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보다는 총체적이고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김철(2015)은 그중에서 '1910-1945년' 동안 창작된 소설 중에서 한인여성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당시 중국인 작가 시선 속에 비취진 한인여성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철은 한인여성을 크게 '망국노 조선 여성', '각성하여 저항하는 조선 여성', '항일 투쟁하는 여전사'형상으로 분류했고, 「이웃」에 등장하는 여성은 '망국노의 여성'으로, 「만주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여전사'형상으로 구분하였다. 당시 한인제재소설에 관심을 두던 수첸(舒羣)과 다이핑완(戴平萬)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평범하고 가난했던 보통의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가난과 민족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여성이었다.

수첸(舒羣)은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고 성장한 후에도 유랑하고 도피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평탄치 않았던 수첸의 삶은 그가 하층계급에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항일·항전을 위한 문학작품을 쓰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수첸(舒羣)은 칭다오(靑島)에서 국민당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1936)」라는 첫 작품을 창작했고, 이어 「이웃(鄰家)(1936)」, 「바다 저편(海的彼岸)(1940)」을 통해서도 한인여성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수첸(舒羣)은 당시 항일을 위해 실향 신세에 처한 한인의 모습에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며 실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던 것이다. 한편, 다이핑완(戴平萬)은 농민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다. 그는 선비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의 가난과 고통을 목도할 수 있었다. 1921년에는 직접 농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는 훗날 《激怒》, 《陸阿留》, 《村中的早晨》에서 억압당하는 가난한 농민형상을 그려내는 데 큰 바탕이 되었다.³⁾ 이후, 다이핑완(戴平萬)은 중국작가연맹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문학작품을 창작했고, 농

3) 杜雲通·杜興梅, 「戴平萬小說創作論」,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9, 132쪽.

민뿐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평범한 민중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급해방과 혁명을 주장했다. 수첸(舒羣)은 “작가는 작품의 체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친숙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작품의 체제가 작가를 무리하게 한다면, 그는 온전한 작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만큼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내지도 못할 것이다⁴⁾”라며 작품 창작에 있어 작가 본인의 경험을 강조했다.

이처럼 수첸(舒羣)과 다이핑완(戴平萬)이 작품 속에 묘사한 인물은 만주지역의 한인여성이었지만, 이들이 집중한 것은 중국의 현실과 미래였다. 당시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팔아 생계를 이어간 것은 비단 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중국사회에서도 만연했던 사회 문제였다. 중국은 극심한 가난으로 딸들이 시장에 헐값에 팔리는 인신매매가 자행되었고, 동북지역의 성매매 업은 번성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업소가 선양(沈陽)에 1000여 곳, 창춘(長春)에 1000여 곳, 헤이룽장(黑龍江)에 400여 곳, 하얼빈(哈爾濱)에 700여 곳, 지린(吉林)에 800여 곳이 있었다.⁵⁾ 두 작가는 이미 가까운 곳에서 동북지역 중국의 현실을 목도하며 중국이 스스로 반성하며 경각심을 갖기 원했던 것이다.

이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작가는 1936년 같은 해 「이웃」과 「만주이야기」를 각각 발표했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서술자 ‘나’의 1인칭 시점으로 섬세하게 그려냈다. 두 작품은 모두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딸’들의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웃」의 딸은 비참한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만, 「만주이야기」의 딸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새로운 삶을 희망했다. 이에 본고는 두 작품에 나타난 한인여성을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 형상’과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딸의 형상’으로 구분하고 1930년대 만주지역의 한인 여성들의 삶과 두 작가가 한인여성을 ‘타자화’한 이유

4) 於靜·範慶超, 「論舒羣抗戰時期的小說」, 『鹽城師範學院學報』 第39卷第1期, 2019. 80쪽.

5) 劉怡君, 「偽滿洲國城市中國婦女生存境遇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 2019, 71쪽.

와 목적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의 형상

우리사회에서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강한 모성애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즉, 어머니의 최고의 사명은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수퀸(舒羣)과 다이평완(戴平萬)은 작품을 통해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가?’, ‘생존의 위협은 과연 위대한 여성의 모성애마저 사라지게 하는가?’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어머니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소위 위대한 모성애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하였다…….

6)

나는 그녀의 안색이 근심스러워 보일 때마다 어젯밤에 그녀의 딸이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딸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만약에 딸이 슬퍼 보이면 그녀는 기분이 더욱 좋아져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어떤 때는 나에게 한 접시 주기도 했다. 7)

두 어머니는 왜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두 모녀의 가정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웃」과 「만주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려인여성들은 모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 「이웃」의 첫 장면은 한 고려인 노부인이 중국인인 ‘나’에게 세를 들어와 살 것을 권유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고려인 집의 문짝과 창은

6)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花城出版社, 2019年9月, 151쪽.

7) 舒羣, 《没有祖國的孩子》, 沈阳:春風文藝出版社, 2019年11月, 86쪽.

모서리마다 낡아있고, 방 안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을 정도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는 이리저리한 핑계로 노부인의 제안을 거절 하다가 결국 ‘당신의 방은 너무 더럽다’는 말로 그 집에 머물기 싫은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나’의 단호한 거절에도 노부인은 끊임없이 세를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렇다면 고려인에게 방을 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려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고려인에게 방을 내주면 자주 방세가 밀린다고 했다. 어쩌면 고려인 스스로 자기 민족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작가는 수치심에도 둔감하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불신할 정도로 가난한 고려인의 모습을 나타냈다. 수첸(舒羣)은 노부인의 외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녀는 고려인 고유의 짧은 상의에 바닥을 끄는 긴치마를 입고 있었다. 모두 흰색 옷이었지만 오래된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8)

한인제재소설 중에는 ‘조선인’ 또는 ‘고려인’의 첫인상을 외모묘사를 통해 표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은 ‘더럽고 낡은 옷차림’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강조한다. 예컨대, 타이징농(臺靜農)은 「나의 이웃(我的鄰居)」에서 얼룩이 묻고 낡아빠진 교복을 입은 조선인의 겉모습을 묘사했고, 바진(巴金)은 「머리카락 이야기(發的故事)」에서는 백발이 성성하고 뼈만 앙상해져 버린 조선인 친구를 묘사했다. 수첸(舒羣)은 또 다른 한인제재소설인 「조국이 없는 아이(沒有祖國的孩子)」에서 맨발에 낡은 제복을 입고 있는 고려인 아이를 묘사했다. ‘가난’은 ‘더러운 것’이 되었고, 더러운 것은 곧 ‘혐오’ 또는 ‘연민’의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1920-30년대 창작된 중국현대문학작품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외모묘사는 다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다.

8) 舒羣, 《沒有祖國的孩子》,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2019年11月, 80쪽.

「이웃」에서도 서술자 '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상대를 무조건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노부인은 하루 종일 페인트를 칠하고 청소를 해서 낡은 집을 새로 지은 집처럼 바꾸어 주었다. 그러자 '나'는 또 습기를 문채 삼았다. 그러나 사실 그 방은 창문만 열어도 통풍이 잘 되는 방이었다. 고려인 노부인은 마치 '나'의 하인이나 된 것처럼 괜한 트집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스스로 자기 민족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 정도 되니 중국인인 '나'의 입장에서 고려인 집에 머무는 데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를 찾을 셈이다.

그러나 '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노부인의 아들들이 '독립군'이었던 것이다. '나'는 대화 중에 노부인에게 세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은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선으로 압송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저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노파가 알고 보니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조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순간 호기심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편, 가정 형편이 어렵기는 「만주이야기」 속의 고려인 모녀도 마찬가지다. 서술자 '나'가 사는 정월에는 모두 여섯 가정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집집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달랐지만 모두가 가난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고려인 가족'이었다. 다이핑완(戴平萬)은 고려인 모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집은 고려인 가족이었다. 집에 남자가 없고 어머니와 딸 두 사람만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공장에서 원하지 않았고, 종일 집안에 엎드려 짚으로 새끼를 꼬았다. 하지만 딸은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처럼 야속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⁹⁾

9)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 花城出版社, 2019年9月, 150쪽.

「이웃」에서는 장성한 아들들이 모두 독립 운동을 하다 일본인에게 끌려갔다고 했고, 「만주이야기」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두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바로 고려인 가정에 남성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딸만 있을 뿐이다. 남성의 존재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만주이야기」의 ‘라오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라오리’는 ‘나’의 친구로 매달 공장에서 30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작가는 그가 이웃들 중에서는 제법 유족한 편이라고 했다. ‘라오리’는 중국인이었고 남성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사회 구조 안에서 남성이 가족을 통솔하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역사가 길다. 고려시대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장자를 우대하는 상속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크게 하락했다. 가장의 지위와 재산은 아버지에서 장남으로 계승되었고, 가장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힘의 격차가 매우 컸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되었고 오직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일제시기 도시지역에서 여성들의 직업 중 가장 많았던 것은 ‘接客업종사자’와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이었다.¹⁰⁾接客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예기(기생), 창기, 카페 여급 등 성매매산업 종사였고, 가사사용인은 일제시기 1920년대 후반 고용이 본격화되면서 사회현상으로 주목받았다.¹¹⁾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남의 집 식모살이나 품팔이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일부 여성들은 생계수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

10) 이송순, 「일제하 1920~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2016년, 411쪽.

11) 이송순, 「일제하 1920~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2016년, 401쪽.

매매 또는接客업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인간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웃」과 「만주이야기」에서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고려인 어머니 역시 주변의 중국인들에게 강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고려인 어머니는 본인 사정이야 어찌 되었던 자기 딸을 창녀로 내몬 매우 '나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신사임당'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신사임당은 16세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신사임당은 그림으로 평가받기 이전에 '율곡'이라는 걸출한 대학자를 훌륭히 키워낸 어진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한국은행은 오만 원권 지폐 안에 들어갈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어진 아내의 소임을 다하고 영재교육에 남다른 성과를 보여준 인물"¹²⁾이라 설명했다. 결국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신사임당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재능보다는 가정 안에서 어진 아내, 어진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어머니'를 찬양하는 관념은 반대로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또 다른 여성들을 사회에서 이해 불가능한 대상이 되게 한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훌륭한 어머니로 추앙받지만, 그렇지 못한 어머니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우리사회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모성애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성애'를 강조하는 것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의 활동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차별은 심화되고 같은 여성끼리 반대편의 여성을 비난하고 대립할 위험이 존재한다.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 사이에는 중간은 없다. '어머니'를 이분화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여성의 본능으로 규정된 '모성애'인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트 바덴테르(Elisabeth Badinter)는 "모성애는 인간적 감정일 뿐이고,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며 불안정, 불완전한 것"이

12) 충청매일(<http://www.ccdn.co.kr>) (2020. 3.15.)

라 말하고 있다. 또한 상식과 달리 모성애는 여성의 본성에 깊이 새겨진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엘리자베트 관점에 따르면 「이웃」과 「만주이야기」에서 두 어머니의 모습은 생존본능이 모성본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작품 속 고려인 어머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살아남으려는 강력한 본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역사적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이 언제나 당연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는 많다. 이 현상은 특히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빈곤계층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20세기까지 빈곤계층의 아동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이를 낳기만 하고 방기하는 사례는 매우 흔했다. 여성에게 아이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게 했다. 게다가 어머니의 사랑은 선택적이기까지 했다. 여성은 나이가 들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생존과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자식으로 장남을 선택했다. 이때 출가한 딸은 진실로 부모에게 자식이 되지 못했고, 차남 역시 장남만큼 부모의 자상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¹⁴⁾ 우리 역사에서도 장남에 대한 어머니의 선택적 사랑은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관습은 또 다시 '남존여비'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모성애가 여성의 본능이라면 어머니는 왜 아이를 방기하고 부족한 노동력에 사용했는가? 또한 장남에 대한 어머니의 선택적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성의 모성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어쩌면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에 한정시키고 기존의 가부장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웃」과 「만주이야기」에서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란 소재 자체는 독자에게 강한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3) 엘리자베트 바덴테르(Elisabeth Badinter, 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파주: 동녘, 2009, 20쪽.

14) 엘리자베트 바덴테르(Elisabeth Badinter, 심성은 역, 『만들어진 모성』, 파주: 동녘, 2009, 89쪽.

‘좋은 어머니’라고 규정되는 어머니의 형상과 여성의 본능이라 말하는 ‘모성애’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성 역할을 증시하는 사회일수록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여성은 이분법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급에 따라,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여성에게 지나친 모성애를 부과하여 ‘좋은 어머니’의 형상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딸의 형상

「이웃」과 「만주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한인 여성은 성매매로 내몰리는 만주 지역의 ‘고려인 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작품 속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이었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부재는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인 여성이 만주에서 최빈곤층이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중국인의 민족차별이 있었다.

두 작품은 만주에서 민족차별을 당하는 고려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췌(舒羣)의 「이웃」에는 중국인인 ‘췌핑’이 가난한 고려인을 매우 업신여기고 ‘망국의 노예’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있다. ‘췌핑’이 고려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이들이 가난하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다. 다이핑완(戴平萬)의 「만주이야기」에서도 페이페이(페이페이)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 페이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디서도 절 쓰려고 하지 않고 ‘가오리반즈’라고 욕을 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요. 제가 만약 중국인이라면 이렇게 천대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15)

‘페이페이’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중국인 ‘나’는 그녀가 중국인의 신분으로 방직 공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페이페이’는 공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것을 속여야만 했고, 결국 중국인이 아닌 것이 발각되어 공장사람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뒤 쫓겨났다. 민족차별은 한 인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뿐 만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겪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만주는 조선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조선의 농토를 수탈했다. 이때 수많은 조선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일제의 수탈을 피해 만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떠났다. 특히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 1910년대, 20만 명에서 1930년대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1938년에 100만 명, 1942년에는 150만 명, 1945년 이후에는 216만 명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간도지역 뿐 아니라 서부와 북만주에도 다수의 조선인이 이주하여 일제말기에는 거의 전 만주 지역에 분포되었다.¹⁵⁾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만주는 조선인이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고 지역 곳곳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 당시 만주에는 조선인뿐 아니라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일본인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다.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만주에서 타민족 간의 갈등과 충돌은 어찌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일제는 ‘신변안정’과 ‘생계보장’을 내세우며 조선인 이민 정책을 추진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민족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차별적 정책을 실시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족협화(五族協和)’와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은 ‘오족협화’의 일원이기도 하며, 동시에 ‘내선일체’의 일원이기도 했다. 즉, 조선인은 일본인과 몸도 마음도 하나이므로,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피식민지인 이었지만, 중국인과의 관계에서는 부분적으로 일본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

15)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 花城出版社, 2019年9月, 151쪽.

16) 역사학연구소 저, 『함께 보는 한국 근대사』, 서해문집, 2004년, 245쪽.

조선인은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 기반과 이권을 빼앗는 침략자로서, 일본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비춰진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정책에 협력한 조선인은 친일 성향의 일부 엘리트 또는 만주국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한 소수의 기회주의자들이었다. 대다수의 재만한인들은 「이웃」과 「만주이야기」의 고려인 여성들처럼 민족차별과 궁핍한 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수췌(舒羣)의 「이웃」에도 전형적인 '친일파'형상이 등장한다. 그는 '일어 통역관'으로 일본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보였다. 자신은 비록 조선인이긴 하지만 남자이고 일본인 다음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다. 친일파들은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지만, 강자에게는 더없이 비굴하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일어 통역관 역시 일본인에게 받은 계급적 열등감 혹은 민족적 차별에 대한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 방법으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와 딸은 남자에게 심한 폭력을 당했지만 주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다.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관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혐오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난은 '한 남자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은 여성'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조를 지키지 않은 여성을 창녀취급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을 혐오하고 멸시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조선에 돌아온 여성들을 '화냥년'이라 손가락질 했고, '군 위안부'여성들이 해방 후 귀국하였을 때도 가족들은 돌아온 여성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 군 위안부 여성 중에는 일제의 만행 보다 가족 내 따돌림과 멸시, 남편의 구타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¹⁷⁾. 가족들은 외세의 침입으로 국가가 지켜주지

17)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6, 155쪽.

못한 여성에게 위로는커녕 욕하고 분풀이 했다. 여성들은 꿈에도 그리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오히려 돌아오지 않는 것 보다 못한 수모를 가족에게 받았다. 또 한국전쟁 이후 남편을 잃은 여성을 가리켜 ‘미망인’이라 불렀는데 여기에는 ‘남편이 죽었으면 마땅히 뒤따라 죽어야 하는데 아직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사회는 이미 각자의 공간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여성들에게조차 미망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 없는 여성을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여성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체와 생명을 기꺼이 내던진 여성은 열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처럼 여성은 설령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정조였다. 따라서 여성의 성매매는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돈으로 자신의 성을 판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존중이 필요 없었다. 앞장에서 어머니의 형상이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로 구분된 것처럼 여성은 또 다시 ‘성녀’와 ‘창녀’로 이분화 되었다. 많은 언어권에서 ‘창녀’가 여성을 향한 최대의 모욕인 데는 이유가 있다. 성녀의 반대편에 있는 창녀의 아들, 창녀의 남편은 남성에게도 치욕스러운 언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 여성들 역시 설령 심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웃」과 「만주이야기」에서 고려인 딸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를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또한 두 여성은 불행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 큰 차이를 보였다. 「이웃」의 딸은 어머니의 요구에 반항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만주이야기」의 딸은 어머니를 ‘혼단(混蛋)’이라 욕하고 어머니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한다. ‘페이페이’는 성매매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인격마저 짓밟히는 행위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페이페이’가 만주에서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1930년대 만주는 어디를 가나 일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무엇보다도 조선인을 향한 중국인들의 민족차별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만주 역

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9·18사변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간 만주에는 많은 공장이 설립되었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주로 모여들었다. 만주는 중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된 것이다. 다이핑완(戴平萬)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주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사변’이후, 사람들은 모두 철도와 공장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굶주림에 시달린 까마귀 떼처럼, 황폐한 들판으로부터, 총과 포격이 뒤죽박죽된 산림으로부터, 먼 곳에서든 가까운 곳에서든 모두가 살아남겠다는 희망을 안고서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공장이든, 작업장이든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18)

다이핑완(戴平萬)은 작품에서 일제의 자본주의 근대화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사회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자본주의를 통해 조선, 만주, 상하이, 타이완 등을 침략하여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획득하였다. 여기에는 부족한 일본 열도의 경제를 보완하고 일본이 계획하고 있던 대동아 지배권역에서 자급 경제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¹⁹⁾ 그러나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다. 조선과 만주에서 진행된 근대화는 현지에서 자본 축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 형성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분계급 역시 일본인 자본가는 지배계급으로,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는 피지배계급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본의 식민화 정책에도 유리했다.

또한 일본인 자본가들은 적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여성 인력을 선호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부양받는 자로 정의되어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 노동자, 낮은 임

18)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 花城出版社, 2019年9月, 152쪽.

19) 위르겐 오스터함멜, 박은영·이유재 역,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5, 129면.

금을 받는 생산 노동자로서, 근대화 과정을 보조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²⁰⁾ 「만주이야기」에서 페이페이(페이페이)가 중국인 신분으로 위장하여 공장에 취직했을 때 ‘뚱보언니(胖姐姐)’, ‘큰 언니(大姐姐)’, ‘셋째 언니(三姐姐)’ 등 그녀의 동료는 모두 여성이었다. “한밤중에 큰 언니가 야근(夜班)을 그만두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²¹⁾라는 문장에서 ‘야근’은 당시 장시간 근무의 노동 환경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도 원하는 사람들은 넘쳐났다. 이처럼 생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민자인 조선인은 중국인들에게 더 큰 미움이 대상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배척하고 공격해야만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 고려인 여성들은 중국인이 아니란 이유로 사회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결국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930년대 만주지역의 한인여성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와 한인들을 향한 중국인의 민족차별, 왜곡된 일본의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구조 속에서 만주에서 최빈곤층의 삶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만주는 조선인, 중국인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고,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민족 간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국권침탈로 인한 농민계층의 붕괴와 이로 인한 생존의 위협은 여성 노동력을 일본의 식민지 자본주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시켰다. 그러나 시장에서 여성 노동력의 가치는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했고, 여성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 넣었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족차별은 더욱 극대화 됐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한인여성들이 생존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은 삶을 좇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인여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여성혐오와 민족차별, 그리고 가난과 고통이었다.

20)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320-321면 참고

21)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 花城出版社, 2019年9月, 155쪽.

4. '타자화'된 한인여성성과 의미

그렇다면 두 작가는 왜 만주에서 최빈곤층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여성, 특히 모성애를 상실한 어머니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딸의 형상을 부각하였을까? 수훤(舒羣)의 「이웃」, 다이핑완(戴平萬)의 「만주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작품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의 중국인이 등장한다. 첫째, 「이웃」에서 고려인 모녀를 '망국의 노예'라고 비난하는 '권핑'이라는 인물, 둘째, 「만주이야기」에서 '페이페이'가 만주 공장에 중국인 신분으로 취직했는데 그녀가 고려인이란 사실을 것을 알고 내쫓는 '공장사람들', 마지막으로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고려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각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설령 이들이 한인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의식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인 우월주의'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0세기 초까지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역사가 길다.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소국인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량치차오(梁啟超)는 '조선인은 합병(合併) 발표에도 주변국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은 오히려 흥겨워하는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라며 조선인에 대한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다²²⁾. 당시 중국의 국부였던 쑨원(孫文)도 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약소민족들의 영토를 장차 중국이 회복해야 할 중국의 영토로 간주했고, 중국이 다시 강대국 지위를 회복한다면 이들 약소민족들이 스스로 중국에 복속해올 것이라고 말했다.²³⁾ 이는 중국이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것을 아쉬워하는 자기모순적인 태도다. 이에 대해 루쉰(魯迅)은 입으로는 제국주의를 싫어한다면서 마음속으로는 조선이 본래 중국의

22) 량치차오,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글항아리, 2014. 8쪽.

23)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6, 238쪽.

속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진보적 사상을 받아들인 문인들마저 루쉰(魯迅)이 지적한 이중적 태도를 반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중국인의 우월감은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뿌리 깊게 형성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초, 자신들이 오랑캐 국가라고 업신여기던 일본이 아시아 최강 국가가 되어 중국을 침략하였고, 속국 정도로 생각하던 조선이 일본과 함께 중국의 이권을 빼앗는 존재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중국인의 우월의식은 수췌(舒羣)의 「이웃」과 다이핑완(戴平萬)의 「만주 이야기」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중국인들의 분노이다. 「이웃」에서 ‘권핑’은 고려인의 집에 세를 들려고 하는 ‘나’에게 왜 가난한 고려인의 집에 왜 있으려고 하냐고 했다. ‘권핑’은 고려인을 ‘망국의 노예’라 비난했고, 가난한 고려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마저 수치로 생각했다. 이런 ‘권핑’의 말에는 고려인에 대한 강한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 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분노하게 했을까?

1930년대, 중국은 일제에 의해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되는 역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외 적으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으면서도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족적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았다. 우월의식은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음에도 상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약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폭력적인 언행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그 분노는 상대가 가난하고 힘이 약할수록 정도가 심하다. 당시 ‘권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인 우월주의자들은 내심으로 일본이 조선을 무자비하게 침략하여 정복한 것, 조선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중국인들이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원인도 중국의 권리를 침해한 일본인 때문이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의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하여 조선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지목하여 이유 없이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인에게 우월감을 확인시켜 주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제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중국은 더 이상 조선에게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은 국권을 잃은 조선인에게 쉽게 분노하였고 동시에 자신들도 조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한 것이다.

두려움의 감정은 「만주이야기」의 ‘공장 사람들’에서도 발견된다. ‘페이페이’는 단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공장에서 민족차별을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공장 사람들(중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조선인)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데 강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장 사람들은 조선인을 배척하고 공격해야만,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자신들의 삶이 안정을 찾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과연 1930년대 만주지역 중국인들의 치열한 생존경쟁과 피폐한 삶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었을까? 조선인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었다. 만주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려는 일본의 야심에 있었지만 ‘공장 사람들’은 고려인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혐오와 멸시라는 행위의 폭력성을 알게 된다. 타자화가 일반화된 공간에서는 나 역시 다수에게 소외당하고 타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인 역시 중국 땅을 넘어서는 이방인이 되며, 주권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두려움은 ‘조선인은 우리와 다르다’는 우월주의와 민족차별 형태로 표출되었다. 즉, ‘권핑’과 ‘공장사람들’이 한인여성들에게 보인 분노는 민족적 우월감에서 시작하지만 그들의 불안과 위기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반면, 서술자 ‘나’는 ‘권핑’과 ‘공장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고려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교적 따뜻하고 부드럽다. 작가로 대변되는 ‘나’는 모두 고려인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있다. 가령 「이웃」에서 ‘나’는 고려인 여성에게 친구의 무례한 행동을 대신 사과했고, 「만주이야기」에서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려인 모녀의 삶을 안타

깝게 생각했다. 수훤(舒羣)과 다이핑완(戴平萬)에게 만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수훤은 고향에서 9·18사변을 비롯한 일제의 만주침략을 목도하였고, 다이핑완 역시 1930년부터 4년간 만주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지역의 참상을 담은 다수의 산문과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당시 만주는 조선인 수가 급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재만한인은 두 작가의 시선에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일제의 핍박을 피해 비자발적으로 만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실향민이 되어 타국에서 고통 받는 한인은 작가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비춰진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나’가 보인 연민이라는 감정 역시 ‘중국인 우월주의’라는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웃」에서 서술자 ‘나’는 고려인 집에 세를 들기 전에 고려인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고려인의 집에 머물기까지 ‘집이 더럽다’, ‘냄새가 나다’, ‘습기가 많다’ 등 온갖 이유로 노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다가 이 집이 독립군의 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나’는 본래 고려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노부인이 독립군의 어머니란 사실을 알고 난 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곳이 마치 새로 지은 집의 방 같았다. 게다가 색도 산뜻하고 예뻐서 마치 소녀의 침실 같았다.”²⁴⁾는 ‘나’의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연민의 감정은 「만주이야기」에도 나타난다. 서술자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페이페이’를 측은하게 여겨 그녀가 중국인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나’는 ‘페이페이’에게 평생의 은인이 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녀의 이름은 ‘페이페이(佩佩)’였을까? 이는 중국을 향한 동경과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을까? ‘페이페이’는 소설 중반까지 중국인인 ‘나’를 부러워했고 중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게다가 ‘페이페이’를 제외하고 두 작품 속 한인여성들은 모두 이름이 없다. 이들은 모두 ‘고려인’, ‘고려인 노부인’, ‘고려인 아가씨’등으로 불렸다. 만주에서 ‘조선인’, ‘고려인’이라 호칭은 ‘중국인이 아니다’는 인식을 부각시키는 단어였다.

24) 舒羣, 《没有祖國的孩子》, 沈阳: 春風文藝出版社, 2019年11月, 81쪽.

여기에는 '우리와 다르다'를 넘어 '중국인은 우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당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만주에 살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다기보다 조국에서 살 권리를 빼앗겨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조선인' 혹은 '고려인'이란 말 속에는 국권을 상실한 민족, 배고픔에 쫓겨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온 사람이란 인상이 강하다.

이처럼 두 작품 속의 서술자 '나'는 기본적으로 모두 한인여성성을 측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중국인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누스바움(Nussbaum)은 “측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통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좋지 않은 것이며 고통이 사라져야 상대가 편해질 것이라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연민은 겉으로는 호의인 양 보이게 하지만, 대상을 비주체적인 사람으로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²⁵⁾ 또 상대를 연민하고 동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 무력한 존재여야만 한다. 따라서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이든,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우월주의가 내재된 '타자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주권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성과 아이, 노인과 같은 약자이다. 조선의 비극이 중국의 운명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한 메시지는 두 작품에 모두 잘 드러나 있다. 수퀸(舒羣)은 국민이 주권을 잃으면 타민족에게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조차 쉽게 착취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웃」에서 고려인 여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힌 상황에서도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무기력함에 빠지고 만다. 폭력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었고 그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어쩌면 이 무기력함이 수퀸(舒羣)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즉, 작가는 어둡고 불안한 시기

25)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코리아, 55쪽.

조선을 통해 중국의 모습을 비추어 보길 원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을 때 위험성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중국인 입장에서 의심할 바 없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웃」에서 고려인 여성들이 비극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라면, 「만주이야기」에서 ‘페이페이’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다. ‘페이페이’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강요하는 어머니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고, 다른 일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했다. 비록 그 방법이 중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인인 것을 들킬까 걱정하지 않았고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다른 민족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페이페이’는 ‘국경 없는 여전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사’라는 말에는 불합리한 현실 세계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이핑완(戴平萬)은 ‘페이페이’란 인물을 통해 중국과 조선이 ‘항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서로 연대하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한 만주지역은 업종을 불문하고 민족차별이 심각했고, 그 안에서 약자는 끊임없이 가난과 차별로 고통 받았다. ‘국경 없는 여전사’라는 단어도 다소 추상적이며 결론에서 작가가 제시한 세상 역시 모호하다. 그러나 희망은 희망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희망을 갖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이핑완(戴平萬)이 희망한 세상이 비록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작가로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조한 것은 당시 독자들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가 한인여성을 타자화한 공통된 이유는 이들 모두 1930년대 중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공업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자가 돈을 번다고 해서 가난에서 탈출하거나 가족 내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언제나 임금이 적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극심한 가난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들은 사회에서 혐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웠다. 1930년대 여성빈곤과 인신매매, 성매매는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만주에는 카페, 다방이 새로운 성매매 장소로 등장하였고, 조선에는 불허하던 댄서 홀이 허용되었을 정도로 성매매가 증가했다.²⁶⁾ 일반적으로 성매매종사자는 '길'위의 존재로 조선에서 만주로, 일본에서 만주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²⁷⁾ 그러나 민족차별은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 조선에서 온 한인여성들은 만주에서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을 구분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에 수훤(舒羣)과 다이핑완(戴平萬)은 조선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창작했다. 한인여성들은 비록 중국인들에게 분노의 대상이자 동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웃」과 「만주이야기」는 단순히 중국작가들이 만주지역의 가난한 한인여성의 실태와 현상을 알리기 위해 창작된 것은 아니다. 두 작가의 초점은 중국인을 향하고 있다. 이들은 고려인 어머니와 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조선과 비슷한 역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조선의 비극적 삶이 곧 중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수훤(舒羣)은 피지배자들의 무기력한 삶과 저항하지 않는 소극적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고, 다이핑완(戴平萬)은 '페이페이'를 통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국가적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가자는 희망을 전달했다.

26) 이동진,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2005, 34쪽.

27) 이동진,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2005, 54쪽.

5. 나오며

성 역할을 강조하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두 종류의 집단으로 구분되기 쉽다. 「이웃」과 「만주이야기」의 고려인 어머니는 모성애를 상실한 ‘나쁜 어머니’가 되었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딸은 ‘창녀’가 되었다. 성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이 구분은 명확하고 여성들은 서로 반대편의 여성을 비난하고 질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성의 본능이라 말하는 ‘모성애’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성은 이분법적인 존재가 아니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 혹은 ‘성녀’와 ‘창녀’로 이분화 하여 존경과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웃」과 「만주이야기」의 세계는 곧 현실세계였다. 두 작가는 모성애 상실과 성매매, 여성혐오라는 다소 불편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한중 양국의 역사에서 실제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다. 작품 속 고려인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했지만 중국인들에게 심각한 민족차별을 당했다. 이들은 만주에서 때로는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때로는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목도한 두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가난하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마저 정당화하는 차별과 혐오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배경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여성들의 삶과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소득이 최하위이고,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노동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이유로 빈곤했다면, 현대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남녀소득 격차 등의 문제로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데 차이가 있다.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각종 혐오가 존재한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구분 짓고 차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별은 모두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우월의식에서 출발한다. 작품 속 고려인 여성들은 만주에서 민족차별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차별이 일상화된 공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인 역시 중국 땅을 넘어서는 이방인이 되며 주권을 잃게 되면 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첸(舒羣)과 다이핑완(戴平萬)은 작품을 통해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민족적 연대와 통합을 강조하였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나와 다른 것이 차별의 이유라면 나 역시 언젠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작품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웃」과 「만주이야기」는 1930년대 중국문인들은 이전까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한인을 작품 속에 형상화하며 소재의 다양성과 세계성을 획득했다. 인류는 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천천히 조금씩 변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수첸(舒羣)의 「이웃」과 다이핑완(戴平萬)의 「만주이야기」는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최빈곤층인 한인여성의 삶에 관심을 두고 중국인의 민족차별과 혐오현상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동시에 한중양국의 연대와 통합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량치차오,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글항아리, 2014.
-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임현경 역, 『타인에 대한 연민』, 알에이치 코리아, 2020.
- 역사학연구소 저, 『함께 보는 한국 근대사』, 서해문집, 2004.
- 위르겐호스터함멜, 박은영·이유재 역,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2005.
- 엘리자베트 바덴테르(Elisabeth Badinter, 심성은 역, 『만들어진모성』, 과주: 동녘, 2009.
-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6,
-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김철, 「‘동북작가군’작가들의 문학작품 속에 ‘타자화’된 조선인형상구」, 『한중 인문학연구』 제 35권, 한중인문학회, 2013.
- 이동진,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2005,
- 이송순, 「일제하 1920~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2016.
-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06.
- 戴平萬, 『都市之夜』, 廣州: 花城出版社, 2019.
- 舒羣, 『没有祖國的孩子』, 沈阳: 春風文藝出版社, 2019.
- 杜云通·杜兴梅, 「戴平萬小说创作论」,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9.
- 於靜·範慶超, 「论舒羣抗战时期的小说」, 『盐城师范学院學報』第39卷第1期, 2019.
- 劉怡君, 「偽滿洲國城市中國婦女生存境遇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 2019.
- 충청매일 (<http://www.ccdn.co.kr>) (2020. 3.15.)

Abstract

A Study on the Shape of Otherized Korean Women in Modern Chinese Fiction

- Focused on 《邻家》 written by 舒羣 and 《满洲锁记》 written by 戴平萬

Koh, Hyun Jin

Shū Qún's 《Neighbor》 Da Ping Wan's 《Manchurian Story》 talk about the tragic life of Korean women who had to endure the torment to survive in Manchuria, 1930. The two novels were both written in 1936 with Manchuria as the background, and their main subject is that mothers with lineage from Koryo both force prostitution on their daughters due to desperate situations. The two writers raised questions such as, "Does extreme poverty lead to an absence of great maternal love?" and revealed various Chinese views toward them. Some became angry and some showed pity. Some even became afraid. However, this is a type of 'otherization' underlying the 'superiorism' of Chinese. In this regard, the paper will divide Korean women in literary works into "mothers who have lost instinctive love" and "daughters forced into prostitu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light of Korean women in the 1930s who failed to escape extreme poverty, as well as socio-structural issues, and analyze Chinese attitudes toward them with background knowledge.

Key words : Shu qun, Dai pingwan, prostitution, maternal love,
ethnic discrimination otherization

투고일: 2021. 10. 10. / 심사일: 2021. 10. 15.~ 2021. 11. 15. / 게재확정일: 2021. 11. 20.

